

일본인에 의한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오무라 마사오(大村益夫)

- 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1세대인 오무라 마사오의 학문적 궤적을 돌아보고, 그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오무라 마사오는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동경도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964년부터 와세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담당하는 전임강사로 일했다. 중국문학연구에 매진하던 오무라 마사오는 1962년 최서해의 소설을 번역하면서부터 한국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중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연구를 병행하던 오무라 마사오는 이후 한국근대문학사 연구에 집중했으며, 운동주의 무덤을 발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한국문학연구에 기여했다.

이 논문은 오무라 마사오가 발간한 자료집, 여러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문학사의 정전에 해당하는 작가들 가운데 순수문학의 경향이 강한 작가들보다, 일제식민지 체제 대해 비판적인 작가들에 집중한다. 이것은 오무라 마사오가 당대 한국문학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은 작가들, 한국의 지적 토양 속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영역에 학문적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무라 마사오의 학술적 업적과 성과는 일본 내 한국문학연구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학문적 유산이다.

[주제어] 오무라 마사오, 한국근대문학연구, 비교문학, 번역, 한국학

* 규슈산업대학 명예교수

오늘의 제 보고는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선생님(1933-2023)의 주된 연구나 번역 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선생님의 연구 등을 전체적으로 망라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하실 다른 선생님들이 각자 보고해 주실 것이니, 우선 이 점에 대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무라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은 1973년경, 와세다 대학에 있는 선생님 연구실에서였다. 그 오무라 선생님은 1945년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 카지이 노보루(梶井陟, 1927-87) 선생님과 함께 196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선 1960-70년대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하 편의상 성함을 오무라교수로 하고, 경어도 생략함.)

오무라 교수는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후, 동경 도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해, 1964년에는 모교 와세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담당하는 전임강사가 되었다. 원래 전공분야는 노신 등 중국문학이었기에, 1960년대 초부터 중국문학 관련 논문 발표했었다. 그런데 사모님이 재일한국인이었다는 점도 있어서인지, 한국어도 애써 배우고 1962년에는 이미 최서해 「탈출기」의 일어번역까지 시도하고, 또 동년에 논문 「解放後の朝鮮文学(上)」까지 발표한 것이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중국문학과 한국문학 연구를 병행했었는데, 1978년부터는 직장이 와세다 대학 어학교육연구소로 이동하게 돼, 겨우 조선어(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1960년대 이후 두개 어문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한국문학에 보다 비중을 집중하려고 마음먹어 기획한 것이 연구실을 개방해서 시작한 〈朝鮮文学の会〉였다. 다만 모인 사람은 카지이 선생님 등 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의 항의투쟁이 심한 이른바 대학분쟁기였다.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래도 1970년 12월에는 동인지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 』까지 간행한 것이다. 그 창간호의 「창간의 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번역은 모두 발표자에 의함)

우리가 한국문학의 소개를 마음먹고 문학사 공부를 시작한지 이미 3년 가까이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문학사공부를 하는 동시에, 주 한 번씩 작품강독회를 계속 했다.

그리고 이 모임의 목적으로, 그 때까지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나 소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파악하려는 자세의 결락”을 느껴 마음에 걸렸었다고 쓰고 있다. 이 글은 아마도 오무라 교수가 쓴 것이 아닐까. 그 당시 동인은 오무라 교수 이외에 카지이 씨, 초 소키치(長璋吉) 씨, 타나카 아키라(田中明) 씨, 이시카와 츠카사(石川節) 씨 등 5명인데, 네 분은 모두 대학관계자가 아니었다. 카지이 씨는 동경도립 조선인 중학교의 과학교원인데,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작품 독해나 번역을 시도하고 있었다. 초 씨는 연세대 유학에서 갓 돌아온 20대 청년이었는데 아직 직장은 없었다. 타나카 씨는 신문사 근무를 하면서 한반도에 관한 논설 등을 전개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시카와 씨는 일반시민이었다. 그러니 위의 창간사 글은 오무라 교수가 책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연구실이 있는 오무라 교수 방에 모이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주마다 모이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런 모임에 나는 아직 학생이었는데, 억지로 부탁드려 배석 자격으로 1973년경부터 참석한 것이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 나는 것은 김윤식 교수의 대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한일문고, 1973)를 장마다 회원이 각기 분담해서 요약 발표한다는 대단한 공부 모임이었다. 그리고 강독한 단편 소설 등을 번역해서 동인지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에 게재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단행본 『現代朝鮮文学選』(1·2, 1973, 74)도 간행했다. 이 두 권에 단편소설 27편이 실렸는데, 오무라 교수는 그 중, 崔海君「俗縁」(1972), 朴素遠「春甫」(1946), 李箕永「開闢」(1946) 등을 번역했다. 참고로 나도 오구라(小倉尚) 씨와의 공동역으로 安懷南「牛」(1946)를 번역했는데, 이것이 나의 처음 번역이었다는 점도 감개무량하다.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에는 1974년 8월 중간호(12호)까지 호마다 평론이나 해설 등이 실려 있는데, 오무라 교수의 글은 다음과 같다.

- 第 1 号 : (翻 訳) 宋 敏 鎬 < 日 帝 末 暗 黒 期 文 学 の 抵 抗 >
- 第 2 号 : (翻 訳) 金 東 里 < 巫 女 図 > (1936) (小 説)
- 第 3 号 : (翻 訳) 金 芝 河 < ア ジ ュ ッ カ リ 神 風 > (詩)
- 第 5 号 : (資 料 紹 介) 日 本 留 学 時 代 の 李 光 洙
- 第 6 号 : (資 料 案 内) 『 白 潮 』 と そ の 同 人 た ち
- 第 10 号 : (隨 筆) か の 地 の 人 々
- 第 11 号 : (翻 訳) 崔 海 君 < 波 紋 > (1973) (小 説)
- 第 12 号 : (翻 訳) ホ アン ・ ミ ン < ア ボ 지 > (童 話)
(解 説) 兒 童 文 学 お ぼ え が き

이것을 보면 번역을 중심으로 한 글들이 많다. 이 동인지가 간행된 4년 동안 오무라 교수가 대부분의 시기에 편집인이나 발행인을 맡고 있었기에 상당히 바빴을 것이다. 동인들이 거의 자담하다시피 해서 낸 잡지였으나, 그 당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 호마다 200부를 냈을 뿐인데 매진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상술한 바 『現代朝鮮文学選』을 간행한 출판사가 도산당할 위기에 빠져, 제3권까지 낼 출판 계획을 중지하게 됐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공부를 계속하며 동인들은 고생이 많았지만, 그들의 분투 덕분에 차세대 연구자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된 초 소키치(長璋吉) 씨의 존재는 매우 크다. 초선생은 ‘신일본문학회’가 새로 개강한 시민어학강좌 ‘조선어도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바로 이 강좌의 수강생으로 그 후 계속 지도를 받았다.) 초선생은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 』에도 연재했던 수필을 바탕으로 한 단행본 『私の朝鮮語小辞典 ソウル遊学記』(1973)를 출판해, 호평을 얻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한국현대문학의 연구, 번역 등에 매진해, 金宇鍾 『韓国現代文学史』(1975) = 번역, 저서 『韓国小説を読む』(1977) 등을 간행했다. 그런데 화려하게 활약하는 가운데 47세를 일기로 병으로 서거하고 만 것이다. 극히 적은 한국문학 연구자가 돌아가신 것은 큰 충격이었으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오무라 교수가 계속 연구

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만은 좀 다행이었다.

이 시기의 오무라 교수의 업적을 들어보면, 번역서로는 다음과 같은 저작이 있다.

- 金允植 《傷痕と克服》 1975、朝日新聞社
- 林鍾国 《親日文学論》 1976、高麗書林
- (長璋吉·三枝壽勝と共編訳) 《朝鮮短篇小説選(上)(下)》 1984、岩波書店 (文庫)

그리고 임전혜(任展慧) 씨와의 공편으로 『朝鮮文学關係日本語文献目録』(1984, プリントピア)이 있다. 주로 한국인에 의한 일본어작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이 책자는 상당히 귀중한 것이지만, 이것도 자비출판에 가까운 것이다. 또 1980년대 중반에는 중국 간도 지방에까지 답사를 가서 운동주의 무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성과는 「詩人·尹東柱の墓にもうでて」(1985.11, 『三千里』 43号)나 「尹東柱の事績について」(1986.10, 『朝鮮学報』 121号) 등으로 보고했다. 일찍부터 운동주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 「金學鐵先生のこと」(1990.1.17., 日本海新聞) 등 글로 김학철도 언급하게 되었다. 또, 「金鍾漢と金龍濟と日本の詩人たち」(1992.9, 『昭和文学研究』 25集) 등으로 이 두 시인에게도 주목하게 돼 있었다. 김용제에 관해서는 저서 『愛する大陸よ - 詩人金龍濟研究』(1992.3, 大和書房)까지 냈다. 그러한 가운데, 이상범(李相範) 씨와의 공편으로 『滿鮮日報』 文学關係記事索引』(1995.11)을 오무라 연구실에서 간행했고, 또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씨와의 공편저로 『朝鮮文学關係日本語文献目録』(1997.1, 緑蔭書房)을 바쁜 가운데 내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마지막 업적으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윤인석, 심원섭, 왕신영 씨와의 공편으로 이루어진 『写真版尹東柱自筆詩稿全集』(1999, 民音社)의 간행일 것이다. 오무라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하면서도 다른 연구자

들의 편의를 고려해, 자료집이나 목록류의 편찬에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무라 교수의 논문류는 중국 관계를 제외해도 수십 편이상이 있으니, 여기서는 도저히 다 소개할 수 없지만, 1990년대 이후에 한정하자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일본학술진흥회가 지원하는 과학연구비(소위 말하는 科研)에 의한 공동 연구에 오무라교수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나도 참가한 공동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1995.4~1998.3 (代表者: 大村益夫)

연구테마: 近代朝鮮文学における日本との関連様相

② 1999.4~2001.3 (代表者: 大村益夫)

연구테마: 朝鮮近代文学者と日本

③ 2006.4~2008.3 (代表者: 波田野節子)

연구테마: 植民地期朝鮮文学者の日本体験に関する総合的研究

大村益夫: 共同研究参加者

④ 2013.4~2016.3 (代表者: 波田野節子)

연구테마: 朝鮮近代文学における日本語創作に関する総合的研究

大村益夫: 研究協力者

이상의 약 20년에 걸친 공동연구 중, 오무라 교수가 발표한 논고 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에서는 상술한 바 『『写真版尹東柱自筆詩稿全集』の編纂公刊事業をめぐって』라는 보고문과, 「附属資料」로 윤동주 관계 자료가 게재돼 있다.

다음, ②에서는 「金昌傑研究試論」을 집필했다.

한편, ③·④에서는 오무라 교수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직접 뭔가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다만 2015년7월에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科研④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움「植民地朝鮮の文学・文化と日本語の言説空間(3)」에 는 참석하고 「総評」을 한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서서히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기할만한 일은 ①의 공동연구에서만이지만, 동경외대 조선어학과 교수이던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壽勝, 1941-) 씨가 같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는 연구방향을 상의하는 모임에 한번만 나왔다고 기억한다. 그 당시 동경외대 사에구사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이 자주 연구발표 등을 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연구 중심지가 생긴 셈이다. ③·④에서 연구대표를 하게 된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1950-) 씨는 원래 동경외대 전임강사가 된 초교수 밑에서 공부하다가 초선생의 서거로 사에구사 연구실에 다니게 돼, 서서히 일본을 대표하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로 성장해 간 것이다.

그 사에구사 선생은 초선생과 동갑이었고, 1980년대 이후 『『無情』における類型的要素について』(1985. 10), 「李光洙と仏教」(1990. 10), 「金東仁における近代文学」(1991. 7), 「李箱のモダニズム」(1991. 10) 등 논고를 조선학회 기관지 『朝鮮學報』에 발표도하고 또, 시민강좌에서의 강연내용을 책자로 한 『韓國文學を味わう』(1997)을 간행하는 등 활약하고 있었다. 대학교수로서 매우 바쁘기도 하니, 科研에 모인 오무라 교수의 인맥과는 그다지 접촉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에구사 연구실과 오무라 연구실 양쪽에 깊이 관여한 하타노 씨의 주요연구 대상은 이광수였고 김동인이나 홍명희에도 연구대상을 넓히고 있었다. 그러니 사에구사 교수와 가까운 대상도 있었다는 뜻이 된다. 오무라 교수의 연구에 이광수나 김동인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은 사에구사, 하타노 같은 우수한 후속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니 자기는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장혁주나 염상섭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으니, 좀 불안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의 오무라 교수의 업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역시 그 이전보다 논문 집필수는 줄었으나, 평론이나 해설 그리고 강연 등은 여전히 활발했다. 이 시기에 특필할 일은 植民地文化学会에서의 활동이다. 이 단체는 일본 사회 문학회를 모체로 2001년10월에 발족

해, 주된 테마는 당초부처 ‘만주국’ 문화의 연구였다. 학회지 『植民地文化研究』를 발행하는 이 단체에 오무라교수는 한 때 임원을 맡으면서 논문 「在滿朝鮮人の文学」(2003.7, 第2号)을 쓰기도 했으며 번역, 해설로는 金昌傑(2009.7), 安寿吉(2011.7), 金朝奎외(2012.7), 沈連洙(2013.7), 姜敬愛(2014.7) 등의 시나 소설 등을 정력적으로 소개하고, 논문으로는 「第2回大東亞文学者大会と金龍濟」(2012.7), 「野葡萄と金逸善」(2014.7),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済州島文学者たち」(2015.7) 등을 거의 매호마다 집필했다. 오무라 교수의 의식이 더욱 확대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여기서 오랫동안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텐리(天理)대학에 본부를 둔 朝鮮学会(1950.10-)와 오무라 교수의 관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무라 교수는 20여 명이 있는 임원인 간사 중, 현대문학 담당 간사로 카지이 선생과 더불어 들어서 1980년대말까지 오랫동안 중책을 맡아 왔다. 조선학회에서는 운영회와는 물론이고, 간사의 대부분은 상임간사로 편집위원도 겸무해, 학회지의 편집이나 투고논문의 심사 등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오무라 교수가 1997년까지는 그냥 간사직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후 2003년 3월에 70세가 돼, 은퇴원칙에 따라 퇴임할 때까지는 상임간사 겸 편집위원도 맡고 있었음.) 아마도 근무대학의 교수회의에도 결석할 때가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다. 그래야만 필요 이상의 무리를 하는 일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 등을 계속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 현대문학 관계의 상임간사는 카지이 선생의 서거에 따라, 1991년 1월~2000년 3월에는 사에구사교수가 이어갔고, 그 뒤는 내가 맡았었음.)

그러한 사정인지 오무라 교수의 글은 『朝鮮學報』지에는 그리 많지 않다. 전술한 바 「〈調査報告〉尹東柱の事績について」(1986.10), 「共和国における金朝奎の足跡と作品改作」(2000.10), 「〈書評〉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第4巻』」(2009.3) 정도이다. 논문 발표 기관으로서는 이 잡지를 그리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야 할텐데, 오무라 교수의 업적은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기도 하고, 또 그 양도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에는 강연 등도 많지만, 생략할 수 없는 활자화된 것만 거론해도 다음과 같은 업적들이 있다.

- (翻訳) 《韓国短篇小説選》(長璋吉・三枝壽勝와 共編訳) 1988、岩波書店
- (論文) 〈早稲田出身の朝鮮文学者たち〉 2001.3、早稲田大学 《語研フォーラム》14号
- (編纂)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布袋敏博와 共編)、2001-2008、緑蔭書房
 - 第1期 (1939-43) : 創作篇 全6卷 / 評論・隨筆篇 全3卷 (2001-2002)
 - 第2期 (1901-38) : 創作篇 全5卷 / 評論・隨筆篇 全3卷 (2004)
 - 第3期 (1908-45) : セレクション 全6卷 (2008)
- (編纂) 《金鍾漢全集》(藤石貴代・沈元燮・布袋敏博와 共編)、2005、緑蔭書房
- (翻訳・解説) 姜敬愛《人間問題》2006、平凡社
- (翻訳・解説) 《風と石と菜の花と一濟州島詩人選一》2009、新幹社

끝으로 오무라 교수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특징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끝내고자 한다.

오무라 교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반도 밖에서 활동한 한국인의 작품 등에 관한 언급이나, 한국인의 일본어창작 관계의 연구도 계속 해 온 분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의문은 특히 한국 현대문학사상 주요 문인으로 널리 알려진 몇몇 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광수의 경우, 와세다에 유학한 사람이기도 하니, 상술한 바 자료 발굴로 「日本留学時代の李光洙」(1971.12, 『朝鮮文学』5号)란 글과 이광수가 최초로 시도한 일어단편 「愛か」를 소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작

품론이나 작가론은 없는 것이다. 또, 염상섭, 김동인, 현진건, 채만식, 이태준, 박태원 등에 대해서도 문학사적으로 언급은 하면서도 작품론 등은 거의 없다. 이들 작가는 1930년대까지 한국의 근대문학의 초창기, 발전기를 이끌어온 주요 문인들일 것이다. 물론 한 연구자가 꼭 혼자서 수많은 문인을 연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오무라 교수의 사고 방식이나 관심의 소재를 헤아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해방 전에 활약한 문인으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는 문인으로는 한용운, 조명희, 최서해, 임화, 나도향, 이기영, 김팔봉 등이 있다. 이들 문인은 대부분이 프로문학 계통의 사람이 아니면 일제 식민지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이었다. 개화기 이후의 문단을 이끌었지만 식민지 체제에 대한 자세가 애매하거나, 그냥 순수문학만을 주장하는 문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더 말한다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오무라 교수인데, <한국근현대문학사>와 같은 문학사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학사를 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호오를 일단 떠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조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미개척 작가나 작품 발굴이나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오무라교수는 좀 여유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오무라 교수 다음 세대인 사에구사 교수가 집필한, 앞서서도 말한 『韓国文学を味わう』(1997,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는 귀중한 글이다. 그런데 이 책자는 일반에 판매되는 책은 아니었다. 그 후 25년이 지났지만, 일본인에 의한 한국문학사 단행본은 아직 한 권도 없는 것이다. 오무라 교수는 아마도 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을텐데 말이다.

사실 1970년대 이후, 카지이, 오무라, 초선생 등 ‘朝鮮文学の会’에 모인 선구자 세 분의 후속세대로, 사에구사 씨나 니쇼가쿠사대학(二松学舎大) 교수가 된 세리카와 테츠요(芹川哲世) 씨(개화기소설, 농민문학 등)의 활약이 있고, 또 1980년대 이후에는 오무라 교수와 공편 등이 많이 있는 와세다대학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씨(김사랑 연구 등)나, 사에구사 연구

실에서 출발한 토야마대학(富山大)의 와다 토모미(和田とも美) 씨(이광수 연구 등)가 착실한 연구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오무라 교수는 상술한 『『韓國語教育論講座第4卷』』에 대한 「書評」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읽어보니, 우선 느낀 것은 젊은 세대의 대두이다. 현재 교육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가 집필진의 중심에 있어 신선하다. (중략) 그 반대로 불만도 다소 있다.”고 쓰면서 집필자마다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반갑고 눈부신 시선을 보낸다”라고까지 적은 것이다. 오무라 교수의 솔직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이 젊은 연구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수는 역시 적다. 오무라 교수가 혼자하다시피 고군분투했던 시대는 겨우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50년 이상 일본인에 의한 한국 현대문학 연구를 이끌어 온 선생님이 마음 놓고 휴식하실 수 있게, 후속세대 연구자들은 모두 연구나 번역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젊은 연구자를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부언하겠는데, 이번 내 발표는 오무라 교수와 그에 관계된 일본인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이나 일본에 유학을 온 한국인 연구자는 언급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 참고문헌

- 大村益夫, 「詩人・尹東柱の墓にもうでて」, 『三千里』 43호, 1985.11.
_____, 「尹東柱の事績について」, 『朝鮮學報』, 121호, 1986.10.
_____, 「金學鐵先生のこと」, 『日本海新聞』, 1990.1.17.
_____, 『愛する大陸よ - 詩人金龍濟研究』, 大和書房, 1992.3.
_____, 「金鍾漢と金龍濟と日本の詩人たち」, 『昭和文学研究』 25집, 1992.9.
_____, 「早稲田出身の朝鮮文学者たち」, 『語研フォーラム』 14, 早稲田大学, 2001.3.
_____, 「第2回大東亞文学者大会と金龍濟」, 『植民地文化研究』 11, 植民地文化学会, 2012.7.
_____, 「野葡萄と金逸善」, 『植民地文化研究』 13, 植民地文化学会, 2014.7.
_____,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済州島文学者たち」, 『植民地文化研究』 14, 植民地文化学会, 2015.7.

Research on Modern Korean Literature by Japanese Scholars and Masuo Omura

- Focusing on the Post-1945 Period -

SHIRAKAWA YUTAKA*

This article aims to trace the academic trajectory of Masuo Omura, a prominent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studies scholars in post-1945 Japan, and to critically examine his perspective on Korean literature, elucidating its significance. Masuo Omura graduated from Waseda University, completed his doctoral program at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and served as a full-time lecturer in Chinese at Waseda University starting in 1964. Initially focused on Chinese literature, Omura began to engage earnestly with Korean literature in 1962, commencing with his translation of a novel by Choi Seo-hae. Integrating his studies of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Omura subsequently concentrated o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making notable contributions, including the discovery of Yoon Dong-ju's grave.

This paper underscores the thematic commonalities present in Omura's collected works and published articles. Rather than focusing on purely literary figures who have experienced periods of obscurity in Korean literary history, Omura's research predominantly highlights authors who were critical of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This focus indicates Omura's scholarly interest in under-represented and under-studied writers within Korean literary studies, particularly those marginalized or politically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Korean intellectual. Omura's academic contributions constitute a significant

* Honorary Professor, Kyushu Sangyo University

legacy that has profound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Korean literary studies in Japan.

Key words : Masuo Omura, Modern Korean Literary Studies, Comparative Literature, Translation, Korean Studies